

‘나프타 쇼크’...동물병원도 의료제품 수급 비상

일회용 주사기 관리 ‘사각지대’... 재고 파악 불가 대한수의사회, 동물 의료용품 관심 요청 공문도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주사기 개당 100 원 안팎으로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구매 자체가 힘들어 난감합니다.”

중등 사태가 깊어지면서 벗어났던 이른바 ‘나프타 쇼크’ 여파가 수의업계까지 번지며 수의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 현장에서 주사기, 수액 포장제, 의료용 마스크·장갑 등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등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는 주사기 한상자당 가격이 5000~7000원 선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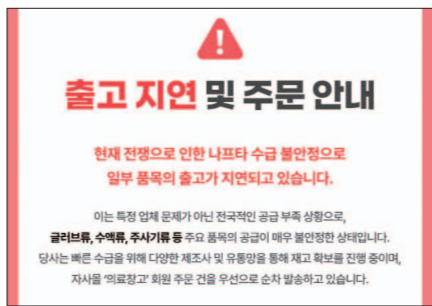
실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가격이 15~20% 인상되고, 일부 품목은 구매 제한이나 주문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공급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프타 가격 상승 영향 등을 이유로 일부 업체는 최대 30%까지 공급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사기는 의약품과 달리 상당 부분이 병원 자체 구매나 민간 유통업체, 온라인 소매통을 통해 공급된다.

때문에 국가가 생산·출고·사용 흐름을 일괄적으로 추적할 수 없어 병원별 재고와 소진량 역시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 의료용품 판매 사이트에 일시품절 표시된 일회용 주사기와 출고 지연 안내문.



이제는 특정 업체 공짜가 아닌 전국민 공공보유 상품으로, 국민보유, 수액, 주사기용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빠른 수급을 위하여 다양한 제조사 및 유통망을 통해 재고 확보를 진행 중이며, 자사를 '국민보유'로 지정 주문 우선으로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료용품 판매 업체는 ‘중등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품목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소모품이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서구의 한 동물병원은 최근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원장은 “의료용 장갑·마스크가 부족

하다는 말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건 주사기 공급이다”며 “온라인상에서는 ‘품절’이거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 구매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 정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재고분이 있지만 주사기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루 동물 진료 수를 정해야 될 판이다”고 토로했다.

아픈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반려인들도 상황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1일 2~3회씩 피하 수액을 놓아야 하는데 주사기와 나비집이 품절되고, 그나마 파는 사이트들은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려동물에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30대 B씨는 “최근 수액 투여에 사용하는 ‘나비집’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며칠 뒤 업체로부터 ‘수급문제로 배송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반려견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하루 1~3차례 피하 수액을 투여해야 하는데 주사기를 구할 수 없어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인체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에 동물 의료용품 분야가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의약품 등 포장제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동물 의료용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나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 12곳 관계자를 만나 의료제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약품협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의료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동물의료 분야는 관련 논의에 포함되지 못해 수의사의 진료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며 “동물병원에 필요한 방역·의료 제품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요 정부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LG유플러스 유심 교체 13일 서울 시내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유심(USIM)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유플러스는 가입자 식별번호 체계에 난수를 도입하는 보안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선별된 약 10만 곳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의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 후 관찰 지방노동관서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

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한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상의, 고용위기 전 주기 대응 나선다

광주 버팀이음 프로젝트 본격 가동... 30일부터 신청 장기근속 최대 200만원·실직자 50만원 등 긴급 지원

광주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전 단계 지원 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대우위니아 사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 잇따른 산업 충격으로 고용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재직부터 실직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을 바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사업의 핵심은 재직·이직·실직 전 단계

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이다. 우선 ‘고용이음 장기근속 장려금’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만 15~59세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생활임금 기준 110% 이하 청년(15~39세), 130% 이하 중장년(40~59세)을 우선 지원해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이음 안착 지원금’을 통해 이·전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는 50만원을 별도 지급해 실업급여 수급 전 공백을 보완한다. 초기 적은 비용과 생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구조다.

지역 산업 연쇄 충격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도 눈에 띈다. 가전·고무 산업과 전·후방 연관 업종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 고용 유지와 숙련 인력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근속 장려금과 안착 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광주상의의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광주상의의 협력사업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재직에서 실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숙련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건설·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불확실성 확대...글로벌 물류 환경 선제 대응”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신임 사장 취임

최관호 신임 사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항만 운영을 통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과 대외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항만 발전방안 제시와 함께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 등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여수광양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광양항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신임 사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항만 운영을 통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과 대외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항만 발전방안 제시와 함께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 등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여수광양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광양항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신임 사장은 “전 방위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항만 구축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곡성 출신인 최관호 신임 사장은 광주 송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9기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직해 전남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